

예장통합 3개 노회 2차 정기회 성료

제111회 총회 총대 선출 등 회무처리

전 남 노회, 4월 9일 광주무등교회
광 주 노회, 4월 7일 광주서림교회
광주동노회, 4월 9일 광주소망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등)가 지난 4월 7일(광주 3개노회(전남, 광주, 광주 노회)과 9일(전남노회, 광

주동노회) 봄 정기회를 갖고 제 111회기 총회 총대 선출 등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제137회기 전남노회, 총회 총대 <당연직 총대> 노회장: 주문창 목사

서 기: 주경수 목사 회 계: 김영석 장로 <목사총대> 김의신 김승익 조택현 김요한 이종문 리종빈 오용선 강정원 오만균 한강수 김정재철 김 현 <장로총대> 송인동 김제원 조성현 박주선 주철호 이동실 박현주 장기영 황대연 박찬길 이영팔 이봉진 문영태 제40회기 광주노회, 총회 총대

<당연직 총대> 노회장: 엄규석 목사 서 기: 김영효 목사 회 계: 고영관 장로 <목사총대> 정경종 이만수 최용희 이광호 정종원 이흥만 장미숙 정주현 <장로총대> 박창수 송원식 박동주 서상국 윤동구 엄창환 김창영 문용호 박동희 제30회기 광주동노회, 총회 총대 <당연직 총대> 노회장: 차현철 목사 서 기: 주세영 목사 회 계: 장형용 장로 <목사총대> 최정원 이원범 유영동 김승원 박형호 신은수 박승현 신상식 허성은 <장로총대> 유재백 박정환 한상인 박래인 조규욱 고재근 서원남 백 형 안태을 최세경



광주무등교회에서 열린 예장 전남노회 제137회기 2차 정기회



광주소망교회에서 열린 예장 광주동노회 2차 정기회

(사)기독교문화선교회 이사장 김숙희 목사 추대

서정형 상임대표 “아름다운 동행 프로그램 박차”

(사)기독교문화선교회(상임 대표 서정형)는 지난 14일 법인 총회를 열고 김숙희 목사를 임기 3년의 이사장으로 연임 추대했다. 김숙희 목사는 크리스천 CEO로 뉴바이오(주) 대표

이사, 홍지중고등학교 이사장, 광주와 세종 반석교회를 섬기고 있다. (사)기독교문화선교회는 ‘신바람 건강’ 창시자인 고헤수관 박사가 2004년 1월 설립한 문화선교단체이다.

2014년 5월, 사단법인 신바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면서, 특히 장애인 관련 상표등록을 했다. 서정형 상임대표는 올해 설립 22주년을 맞아 “복음

회복의 나침반이 되겠다”는 사역비전을 세워 미지림교회 및 능어촌교회를 위한 ‘아름다운 동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서 대표는 “우리 선교회는 잃어버린 희망을 성경적 가치관을 통해 회복하고, 왜곡된 문화 환경 속에서 올바른 기독교화를 세워가는데 사역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서대표는 또 “단순한 집회가 아니라 문화와 교육, 예술을 통해 복음이 스며들게 하는 선교적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숙희 목사 이사장



서정형 상임대표



박주정 한국교원대학교 연구교수

교육칼럼
-나의 최고 미경 썸 나는 제적학교에서 친구들과, 선배들과 어울려 다니며 나이에 맞지 않은 행동과 법에 어긋나는 짓을 반복했던 흔한 말하는 문제아였다. 그러다 보니 나는 본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 용연 학교에 가지 않으면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엄마가 담임선생님께 무릎 꿇고 제발 학교를 다니게 해달라고 애원했던 상처를 안고 용연학교에 오게 되었다. 그래서 난 그 누구도 믿지 못했다. 특히 선생님들은 더 믿지 않았다. 용연학교에 왔을 때 기대감이나 설렘보다는 불안감과 겁이 더 앞섰던 것 같다. 그런

버둥 치며 지냈던 하루하루였다. 나는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나의 어려움이었었고 잘못임을 깨닫기까지 참으로 길고 험한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서의 생활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또 원망스럽던 가족들과 선생님들이 이제는 가장 존경스러운 분들이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 같다.

지금의 나를 만들어 준 또 나의 길을 올바르게 인도해 준 나의 최고 미경선생님께 이렇게라도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다. 누구나 거쳐 가는 사춘기 시절의 갈림길에서 나를 응원해주고

용연학교에 띄우는 소식-3

데 이곳에서 선생님들도 잘해주시고 아이들도 나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인지 학교에 서서히 적응해 나갔다. 그러나 나의 충동성으로 인해 나의 일탈은 점점 더더 심해져 갔다. 술 담배는 물론이고 접하지 않아야 할 증독에 빠져들어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 치료가 시급했지만 도망가고 싶었다. 엄마의 간절한 부탁과 교장선생님과 미경 선생님의 진심어린 권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 덕분에 증독이란 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지금이야 이렇게 가볍게 웃으며 말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때 나는 부모님도 선생님도 모든 게 원망스럽고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울며 말

목욕히 지켜봐 주셨던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저 이렇게 잘 컸습니다. 나 정말 예쁘게 컸죠? 나를 이렇게 빛나게 해주신 용연학교 선생님을 정말 감사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었지만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아프니까 청춘이라지만 너무 많이 아프지 않았으면 한다. 선생님이 나에게 늘 해주셨던 말 중에 잘하지 못해도 우리는 자라는 중이니 성공하지 않아도 되니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라고... 용연학교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2018. 1.

박소형 올림(2012~3년 수료생)

이 부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사랑교회 창립 55주년 맞아 ‘아름다운 동행’ 집회

‘가는 세월’ 서유석 집사 초청 “주민과 함께 찬양·간증”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로에 위치한 한사랑교회(윤민용 목사 시무)가 창립 55주년을 맞아 ‘아름다운 동행’ 집회를 오는 5월 31일 오전 10시 30분 교회 본당에서 연다. 이번 집회는 서유석 집사가 초청되어 찬양과 신앙 간증을 전할 예정이다. 교회 측은 이번 행사가 교회 창립을 기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감사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교회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공동체의 의미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찬양과 간증 중심으로 진행되며, 참석자들이

신앙과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유석 집사는 1968년 데뷔해 ‘사모하는 마음’, ‘홀로 아리랑’ ‘가는 세월’ 등 히트곡으로 당시 폭넓은 세대의 사랑을 받으며 활동해 왔다. 이번 집회에서는 찬양과 간증을 전하고 대표곡 무대도 선보일 예정이다. 교회측은 이번 집회를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집회 관련 문의는 한사랑교회(062)944-786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사랑교회가 오는 5월 31일 찬양시역자 서유석 집사를 초청한 가운데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타이틀로 교회 창립 55주년 감사 찬양·간증 집회를 갖는다.

성명서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암 5:24)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정신 계승을 위해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 개헌을 촉구한다

지역 기독교교회협의회(NCC) 전국협의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깊이 성찰하며, 지금이야말로 헌법을 통해 그 정신을 온전히 계승해야 할 역사적 책무의 시간임을 선언한다.

4.19혁명에서 시작되어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진 민주주의의 여정은 억압과 폭력에 맞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지켜낸 국민의 역사이며, 오늘의 민주공화국을 가능하게 한 근본 토대이자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공동의 가치이다.

특히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과 독재에 맞서 국민이 헌정질서를 지켜낸 결정적 전환점으로서,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기억하고 헌법적 가치로 새겨야 할 민주주의의 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이 아직 헌법 전문에 명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헌정 질서가 여전히 완결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헌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최소한의 역사적 과제를 실현하는 ‘원포인트 개헌’이다. 이는 과거를 기념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분명히 전하고, 헌정질서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개헌을 실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개헌 논의는 다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크며, 민주주의의 역사적 과제 또한 또다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묻힐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여전히 당리당략에 간여 이 역사적 책무를 미루고 있다. 특히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역사 앞에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에 지역NCC 전국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국민의힘은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반대 입장을 즉각 중단하고, 각 국회의원이 역사와 국민의 뜻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유투표를 보장하며 개헌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하나,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국민의 뜻을 직접 묻고, 헌법을 통해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과거의 회색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를 온전히 계승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지역NCC 전국협의회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헌법에 새기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교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연대하여 책임 있는 행동을 이어갈 것이다. 헌정질서를 지키고 민주정신을 계승하는 길에 더 이상의 지체는 있을 수 없다.

2026년 4월 19일

지역 기독교교회협의회(지역NCC) 전국협의회

-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광명기독교교회협의회,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순천기독교교회협의회, 인천기독교교회협의회, 전남기독교교회협의회, 전남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 전북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기독교교회협의회,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

미션리 구독 및 광고 문의
T. 062)367-9109 F. 062)367-9108